

# 열두 번째 봄... 멈추지 않는 기억, 이어지는 약속



##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행사

### 수완마을초등학교 '기억 피케팅'... 노란 리본에 추모글 헬기 순직 소방관도 기려... 안전공동체 구축 다짐

“기억의 힘은 강합니다. 기억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광주 도심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시민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추모가 이어졌다. 수완마을초등학교는 이날 오전 광산구 수완사거리에서 ‘열두 번째 봄, 기억은 멈추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추모 행사를 열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행사에는 수완문화사랑회, 수완에너지전환마을 등 지역 단체와 주민 60여명이 참여했다.

이곳은 2017년 11월 수완동 주민과 시민단체, 광산구가 함께 조성한 세월호 기억 공간으로,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원에서는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조약돌에 새겨 ‘세월호 기억나무’ 아래에 내려놓는 추모가 진행됐다. 또 노란 리본에 ‘시간은 흘러도 우리의 약속은 머물러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적어 나무에 매달며 애도의 뜻을 이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순 피켓을 들고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섰다. 피켓에는 ‘기억해 약속해 안전한 대한민국’,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억’,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등 추모 문구가 담겼다. 약 30분간 이어진 ‘기억 피케팅’ 동안 출근길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췄다.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고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잊었다”고 말하는 등 공감의 반응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이어 약 1km를 걸어 풍영정 천변길공원 ‘기억의 소풍’으로 이동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5명에 대한 추모도 함께 이뤄졌다. 이들은 2014년 7월 17일 진도 팽목항에서 광주로 이동하던 중 사고로 희생됐다. 이날 추모 행사에 참여한 주민 배정배씨(78)는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며 “시간이 흘러도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재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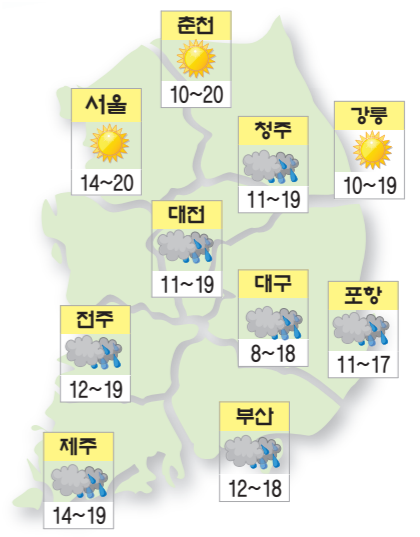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구청 소녀상 광장에서도 복구초 불모임 주관으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 ‘진실과 생명안전’을 향한 노란빛 동행’이 열렸다. 행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재강씨의 아버지 김영백씨(66)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추모사와 공연, 기억나무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김영백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

코 멀리 있지 않다”며 “한 사람의 발걸음은 신재이지만 100명의 발걸음은 행진이 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관심이 모여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은 17일까지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와 함께 생명 존중·안전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8일 오

후 2시 진도 기억의 숲에서 출발해 팽목항 기억관까지 걷는 ‘노란빛 동행 팽목 기억순례’를 진행한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희생자지원공동체지역공동체실천회의는 4월을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전시와 상영회, 기억식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예보	05:59	달맞이꽃	05:26
해돋이	19:06	달님	19:01



광주	13~17	
목포	12~16	
여수	11~17	
순천	10~17	
구례	10~17	
광주	매남	11~16
신도	12~16	
흑산도	11~14	
진남	고흥	10~17
진도	11~16	

목포	밀물(고)	01:51 / 14:04
	썰물(저)	07:13 / 19:26
여수	밀물(고)	08:58 / 21:22
	썰물(저)	02:40 / 14:56

## 교도소 수감 중 상습폭행

만년필 ○...교도소 수감자들이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3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교도소 내에 사주먹과 플라스틱 젓가락 등으로 수감자 C씨(63)의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이들은 C씨가 평소 일과시간에 행동이 느리고, 실수를 자주하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몸에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허위 매물 사기·자금 세탁 범죄자들 ‘단죄’

### 피해자 369명·2억대 편취...가상자산 환전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수법으로 역대 급몰을 거둬내고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범죄자들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D씨(24)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이들은 디스코드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랐다.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되면 일정 수 수료를 제외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총책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와 C씨는 2025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201명으로 부터 약 1억 2400만 원을 받아 쟁했다.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2025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16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700만 원이 편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 과정에 관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고, 주범 검거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진행한 점이 고려됐다”면서 “D씨의 계좌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금이 입금되고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된 점은 의심스럽지만, 이를 곧바로 범죄 수익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특송화물로 필로폰 밀수입 라오스인 검거

### 광주세관·검찰·출입국관리사무소·국정원 합동수사

광주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라오스인 A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같은 국적 B씨(31)를 추적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 2월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은 5kg 상당으로 1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터 태국 현지에서 발송 예정이던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이 은닉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분석에 나섰다. 검찰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 밀수입 정보를 제공했다. 광주세관은 국내의 반입 패턴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용인의 주소를 특정하고 지난 2월 용인으로 배송 예정인 태국발 특송화물 속에서 과자, 초콜릿, 커피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했다. 이어 광주지

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원 등과 공조를 통해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택배를 수취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내 제조업체 공장서 근무해 온 A씨는 총책 B씨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필로폰 밀수 적발은 세관·검찰·출입국·국정원 등 마약 단속 관련 유관기관 사이 긴밀한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5·18단체 “윤 어게인” 세력 금남로 집회 규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 평화 전력이 있는 보수 성향 유튜브가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5·18 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5·18민주유공자가족회와 5·18민주화운동추진위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5·18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에서의 집회는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정신이 서린 역사적 공간에서 극우 집회가 예정된 사실에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금남로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서려 있는 자리이자 기억과 책임, 역사적 성찰이 요구되는 엄중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유는 역사에 대한 부정과 왜곡, 그리고 타인의 고통 위

에서 있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책임 있는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존중 위에서만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집회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관계 당국 역시 이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공간의 역사적 성격에 부합하는 관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집회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한 보수 성향 유튜브는 최근 동부경찰에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200명 규모로 ‘윤 어게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포스코 사내 하청 215명 ‘근로자’ 인정

### 대법, 원심판결 확정...기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 의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원심의 직접 고용 책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와 ‘파견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해왔다고 판단했다.

직업표준서가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고,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 내용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지시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모든 원고가 같은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2017년 10월 소송을 냈던 협력업체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정년이 도래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특히 광양제철소에서 완성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노동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을 상대로 지

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포스코 본사의 업무와 이들의 업무를 나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7명에는 파견근로자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승소한 근로자들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작업 표준서나 사양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여하거나 업무 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스코가 냉연 포장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던 점에 주목했다. 해당 협력업체는 1976년부터 포장 작업을 맡았으며, 1980년대 후반 자체적인 설비를 설치하고 2004년 특허를 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포장 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다”며 “직업 표준서 등 작성 및 변경에 업체의 경험, 기술이

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됐을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22년 동일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이어 다시 한 번 불법파견 구조를 인정함으로써, 사내하청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관련 소송을 이어왔으며, 이번 사건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 해당한다. 현재도 수백 명이 참여한 추가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유사한 정황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포스코는 최근 협력업체 직원 수 천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내일까지 최대 60mm 비 전남 해상 풍랑특보 발효

광주·전남 지역에 17~18일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새벽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18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예상 강수량은 20~60mm다. 전남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효됐다. 여기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7~18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기온은 10~14도, 낮 기온은 15~25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비가 그친 18일 낮부터 19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25도 이상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다. 호흡기 질환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